지역 소식통

고창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지난달 23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신호기 점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경력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고창 관내 스쿨존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배치하여 주요 법규 위반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안전교육, 홍보물품 제작 등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군청,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동승자 탑승, 안전교육 이수 등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악취배출시설 탈취탑 설치 지원 추진

부안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탈취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인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억2,38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투입해 처리용량 1,000㎥/분 규모의 고성능 탈취탑 1기를 설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이 아니더라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거나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은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은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안군청 환경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10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착수

골프장 18홀 · 호텔 67실 조성 인허가 완료… 체류형 관광거점 도약 본격화

부안군은 대표 민자유치 사업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1221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고 같은 해 6월 부안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2025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7월에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종적으로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시설 건립을 넘어 부안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렀던 부안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숙박과 레저, 휴양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골프장은 부안 변산 격포의 천혜의 해양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계된다.

탁 트인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라운딩을 즐기는 것은 물론 황홀한 붉은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조망권을 갖춰 국내·외 골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서해바다의 비경을 담은 골프장과 프리미엄 관광호텔이 연계된 복합 관광 인프라는 부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생활인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북면~칠보 지방도 708호선 4차선 확포장

도비 777억원 투입해 7km 구간 폭 18.5m 확장 공사… 교통 병목 현상 · 물류 이동망 개선 기대

정읍시 북면과 칠보면을 잇는 2차선 간선도로가 도비 777억원을 투입해 폭 18.5m의 4차선으로 대폭 넓어진다.

정읍시는 북면과 칠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708호선 확포장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에 최종 반영돼 도비 77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북면~칠보 간 총연장 7km 구간이다. 시는 기존에 좁고 불편했던 왕복 2차로를 도로 폭 18.5m에 달하는 널찍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지방도 708호선은 정읍 시내권과 칠보, 산내, 산외 등 동부 내륙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좁은 도로 폭에 비해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는 건의가 빗발치던 고질적인 숙원 구간이었다.

시는 이번 확포장 공사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 병목 현상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산내 옥정호, 김명관 고택 등 정읍을 대표하는 동부권 관광 명소로 향하는 접근성과 물류 이동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확정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방도 708호선 확장이 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며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도로 계획 반영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온 값진 결과"라며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차질 없이 제때 착공될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번 확포장 사업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정읍의 동서 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숙원사업"이라며 "앞으로 도비 확보 등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말 사이 산불 8건 현장 출동… 화재 경각심 '절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 산불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읍시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8건의 산불 출동 현장을 초기 진화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정읍 관내에서는 총 8건의 산불 출동이 발생했다. 당시 기온이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6도를 오르내리고 초속 3.5m의 매서운 북서풍이 부는 등, 건조한 대기와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소속 공무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투입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일부 긴박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수십 명의 인력이 긴급히 합류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펼친 덕분에 다행히 8건 모두 큰불로 번지기 전에 조기 진화되며 상황이 종료됐다.

시는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탓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임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신활력산단 입주 위한 MOU 체결

고창군 · 태양 · 마이크로솔루션, 73억여원 투자 · 26명 고용창출 기대

고창군이 4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태양 및 ㈜마이크로솔루션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창군수와 김선국 ㈜태양 부사장, 하병덕 ㈜마이크로솔루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태양은 고창신활력산단에 부지 6735㎡(2040평) 규모로 47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생산품은 냉·난방용 스파이럴덕트(금속파이프)이다.

㈜마이크로솔루션은 고창신활력산단에 부지 약 6134㎡, 건물 990㎡ 규모로 총 26억6000만원을 투자해 2026~2029년 투자 이행을 추진한다. 주 생산품은 식물성장 촉진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제조 기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고창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기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분양률은 투자협약 체결기업을 반영하여 70.2%를 기록하는 등 분양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고창신활력산업단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입지선정 분야 Top10에 선정된 바 있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입주로 입지 경쟁력과 산업 인프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아카데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특강

12일 오후 2시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시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제120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강단에 서는 문형배 교수(전 헌법재판관)는 '재판관이 말하는 호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정읍 시민들과 만난다. 문 교수는 오랜 법조계 경험을 통해 얻은 법과 공동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배려의 가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다채로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며 '시민이 성장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 도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이번 강연이 이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정읍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전까지 정읍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예약 시스템 메뉴에서 '단풍아카데미'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강연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강연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